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및 위치*

— 이용자 연구 중심의 문헌정보학 —

박 홍 석**

<목 차>

I. 서 론

1. 문헌의 정의
2. 문헌의 내용
3. 정보의 개요
4. 적합성의 개요

II. 문헌 정보학의 학문적 과제

1. 적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의 유통
2.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3. 문헌의 생산에 관한 과제들
4. 문헌의 수집에 관한 과제들
5. 문헌의 조직에 관한 과제들
6. 문헌의 검색에 관한 과제들
7. 문헌의 제공에 관한 과제들
8. 문헌의 이용에 관한 과제들

III. 문헌 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IV. 결 론

Abstract

I. 서 론

컴퓨터와 통신망과 같은 문헌 유통 수단¹⁾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도서관과 보완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새로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생겨나는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도서관학이 한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서의 문헌정보학의 역할 및 학문적 위치)을 많은 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고로 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문헌 유통 수단이란 문헌을 생산하고 생산된 문헌을 보관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국에서는 문헌정보학으로, 미국에서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한국에서 문헌정보학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이름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 이름에 명시되어 있는 문헌과 정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이 학문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과 위치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문헌과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1. 문헌의 정의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보기, 듣기, 만지기, 맛보기, 냄새 맡기 등)한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느낀다. 나무 가지에 싹이 돋는 것을 보고 봄이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신호등의 빨간 불은 길을 건너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오던 차가 내 근처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거나 멈추어 선다면 이는 길을 건너가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미는 경험한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즉 나무 가지의 싹은 나무 가지의 싹을 의미하지 않고 빨간 불은 빨간 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거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론한 결과 얻어진, 이러한 것들과 같지 않은 그 무엇이다. 어떤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표시라고²⁾ 부른다. 나무의 싹은 나무의 싹의 표시가 아니라 봄 혹은 다른 의미의 표시고 빨간 불은 빨간불의 표시가 아니라 정지하라는 의미의 표시다. 이러한 경험은 표시로서 표시 과정(표시의 전달 과정과 전달받은 표시에 대한 의미의 유추(類推)³⁾ 과정)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나무 가지의 싹과 같은

2) 여기서의 표시는 Umberto Eco(1984)가 제1장 Signs에서 다룬 sign의 의미와 비슷하다.

3) 표시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의미가 표시의 고유한 것이라고 보는 것과 의미는 표시를 본 사람이 상황에 맞게 유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있다(Sperber & Wilson, 1986). 의미를 표시의 고유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유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성이 있다.

자연 현상, 신호등 불빛과 같은 기호, 글, 말, 몸짓 등 어떤 의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표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 어떤 의미의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어떠한 의미들⁴⁾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언어, 수화, 기(旗), 연기(煙氣) 등의 표시를 사용해 왔다. 이러한 표시가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전달되려면 어떤 형태의 수단에 저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 중 하나가 글이고 이러한 글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 종이 혹은 책이다. 표시로서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음반이라는 수단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이러한 표시를 문헌이라 부르고 있다. 표시의 저장 수단 자체를 문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논문(일종의 문헌)을 마쳤다고 말할 때 글, 그림, 도표 등의 표시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그 표시가 책에 저장되었건 전자출판을 위해 디스켓에 저장되었건 그것은 논문을 마쳤다는 의미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문헌의 주된 것은 저장 수단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장 수단에 저장된 글과 그림 그리고 다른 종류의 표시인 것이다. 저장되지 않은 표시를 문헌이라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 대화를 문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화이고 말일 뿐이다. 이것이 어떤 수단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문헌이라 부른다. 문헌은 저장된 표시다.

2. 문헌의 내용

문헌은 일종의 표시로서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의 의미를 내용이라고 부른다. 즉 문헌은 내용의 표시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내용

4) 여기서의 의미는 앞서 다루었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의미는 표시물 전달 받은 사람이 유추한 의미고 여기서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의미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의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문헌의 생산자는 어떤 내용을 타인에게, 때로는 자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헌을 생산한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을 의도된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문헌을 전달받은 사람이 유추한⁵⁾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문헌에는 의도된 내용과 유추된 내용이 있고 이 두 가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문헌의 작성, 전달, 그리고 문헌 내용의 유추까지의 과정(모든 종류의 의미 전달 혹은 Communication과정)이 매우 원활할 때 의도된 내용과 유추된 내용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문헌을 전달 받은 사람들 사이에 지식이나 문헌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문헌의 유추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예를 Leonard(1975)와 Markey(1984)가 정리한 색인자들 사이의 색인어 선택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색인어 선택의 일관성은 4-82% 와 10-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문헌의 의미가, 즉 문헌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같고 어느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헌의 내용이 사회학에 관한 것인가 혹은 심리학에 관한 것인가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일관성은 높을 것이고, 정보의 가치에 관한 것인가, 저작권에 관한 것인가, 정보의 생산에 관한 것인가, 문헌 유통의 자유에 관한 것인가 등과 같이 좀더 세밀한 내용에 대한 일관성은 낮을 것이다. 의도된 내용과 유추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 유추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5) 사람의 의사 소통(Communication)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Code Model인데 이 모델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화자가 언어로 기호화 하는 과정과 그 기호화 된 언어를 청자가 해석하는 과정이 같기 때문에 의도된 의미와 해석된 언어의 의미가 같다고 본다. 그리고 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유추(類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미와 청자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유추적(Inferential) 모델이 있다(Sperber & Wilson, 1986).

3. 정보의 개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정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실제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그 개념이 사용되는가를 관찰해 봄으로써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을 어떤 경우에 정보라고 부르는가를 간단하게 살펴 봄으로서 정보의 일반적인 개요만을 알아보자.

문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문헌 그 자체는 정보가 아니다. 문헌 그 자체가 정보라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헌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문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문헌이 아니고 문헌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모든 문헌의 모든 내용은 정보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문헌의 내용을 정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문헌으로부터 유추 가능한 모든 내용을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문헌의 내용 중 전달 받은 이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만을 정보라고 부를 수 있다. 도서관을 정보의 보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도서관의 모든 장서가 모든 사람에게 정보라는 말이 아니다. 장서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가치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보를 생산했다는 말도 문헌을 전달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을 생산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정보라는 개념에는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정보, 저속한 정보, 적합한 정보, 질 좋은 정보 등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색한 경우가 많다. 이보다는 정보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발생하기 이전의 개념인 내용과 같은 개념에 위와 같은 가치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저속한 정보보다

는 지속적인 내용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정보는 문헌이나 포시로부터 유추한 가치 있는 내용이다.

4. 적합성의 개요

적합성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합성을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⁶⁾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정의하기 어렵다는 요인 외에 적합성을 정의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이론적인 고찰에 그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예외적으로 적합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Park, 1993)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와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틀의 한계로 과거의 연구에서 밝혀진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확인에 그쳤다. 적합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판단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학술 연구의 상황에서 이용자가 문헌을 적합하다 혹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Park, 1995)를 통해 적합성의 일반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적합성은 문헌의 유추된 내용과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개념으로서 유추된 내용과 이용자 문제 사이의 관계, 내용과 문헌의 이용 목적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용의 이용자에 대한 가치, 세 가지 종류의 관계로서 발견되었다. 문헌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종류의 관계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는 근원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능한 파생적인 것이 있는데 문헌의 내용과 이용자 문제 사이의 관계가 근원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보라는 개념에 연관시켜 정리해 보자. 우선 적합성은 문헌

6) 적합성의 정의나 적합성에 연관된 것들은 Saracevic(1975)과 Schamber, Eisenberg, & Nilan(1990)에 잘 정리되어 있고 적합성의 정의의 예는 Cooper(1971), Wilson(1973), Bookstein(1979), Hillman(1964), Kemp(1974) 등이 있다.

의 유추된 내용과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결과가 말해 주는 것은 첫째 문헌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문헌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유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추된 문헌의 내용이 없다면 문헌은 적합할 수 없다. 둘째 유추된 내용은 이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만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은 적합한 문헌이 아니다. 셋째 문헌의 내용은 이용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헌의 내용을 어떤 이유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문헌은 적합할 수 없다. 넷째 문헌의 내용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 없는 내용만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 문헌이 적합하기 위한 이들 네 가지 조건들을 정리하면,

1. 문헌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추된 내용은 이용자 문제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유추된 내용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추된 내용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추된 내용과 이용자 문제와의 관계가 근본적인 관계라는 결과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관계가 존재해야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 정보다. 이용자 문제와 관계가 있어 문제 해결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내용이 정보고 이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문헌이 적합한 문헌이다. 이것은 학술 연구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내기 어려워 어느 정도 일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헌의 적합성은 내용을 유추하는 과정과 그리고 유추된 내용이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인 내용과 이용자 문제와의 관계, 내용과 이용 목적과의 관계, 그리고 내용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서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헌 내용의 유추에 관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내용을 유추하는지, 어떤 내

용을 유추하는지, 어떤 요소에 의해 유추 과정과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 문헌의 유추된 내용과 이용자 문제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문헌의 내용과 이용자 문제에 관한 것들을 밝혀야 하고, 이와 함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문헌의 내용과 이용 목적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문헌 내용과 이용에 관한 것들을 밝혀야 하고, 이와 함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유추된 내용의 이용자에 대한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가치 체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관한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적합성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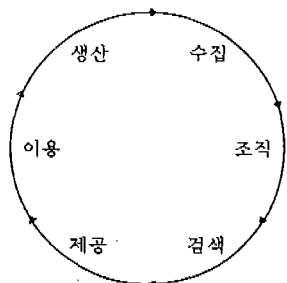
II.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과제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문헌정보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적합한 문헌의 전달을 다루기 때문이며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과제 또한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에 대해 다음 장에서 다루기 위해 여기서 적합성이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이 되는 당위성과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대상에 대해 적합성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학문적 과제를 살펴보겠다.

1. 적합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의 유통

도서관은 문헌의 유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헌의 유통 과정은 그림 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헌 유통의 첫 단계는 문헌의 생산이다. 문헌 유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생산이 원

활해야 한다. 물론 생산되는 문헌은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어 그 사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문헌의 수집이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적합한⁷⁾ 문헌을 수집해야 한다. 셋째는 문헌의 조직이다.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수집된 문헌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는 문헌의 검색이다.⁸⁾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그림 1) 문헌의 유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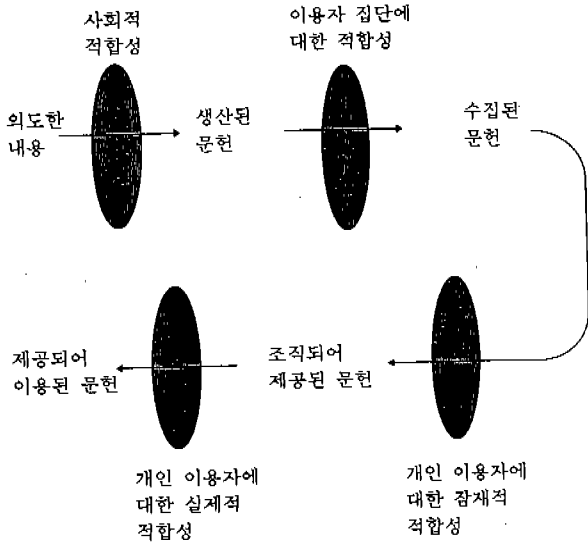
찾기 위해서 조직된 문헌은 효과적으로 검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문헌의 제공이다. 검색된 문헌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어 그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헌의 이용이다. 제공된 문헌의 내용은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서 만약 하나의 단계라도 효과적이지 않다면 문헌의 전체 유통 과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모든 문헌이 이러한 전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문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학은 이러한 문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문적 과제를 수행해 왔고 문헌 유통 수단의 발달로 그 이름이 문

7) 엄밀하게 말해 이용자가 문헌의 내용을 유추하여 그것을 이용할 때까지 문헌은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의 이용이 문헌의 적합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용 이전에는 잠재적으로 적합한 것으로서 내용이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적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합한”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용된다.

8) 정보는 문헌을 전달 받은 이가 유추한, 자신에게 가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검색”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검색의 대상은 정보가 아닌 문헌이고 그리고 실제로 검색의 결과 또한 정보가 아닌 문헌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문헌을 검색한다는 의미에서 “정보검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해 문헌검색이 맞는 말이다.

현정보학으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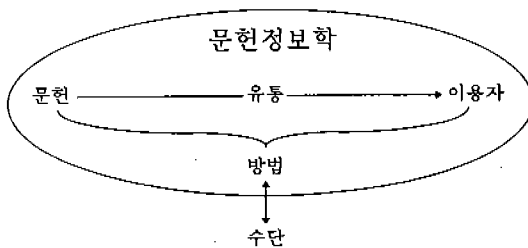
문헌 유통 과정을 적합성의 관점에서 살펴 보자. 우선 사회에 적합한 문헌이 생산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문헌의 생산이 원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적합성은 문헌의 사회에 대한 적합성이고 이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문헌이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합성은 사회의 법률, 윤리, 문화, 도덕 등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과 같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은 그 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문헌을 수집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적합성은 그 기관의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적합성이고 이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문헌만이 수집되어야 한다. 셋째 수집된 문헌들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조직된 문헌들을 검색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과정은 개개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셋째와 넷째 단계에서의 적합성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적합성이다. 그러나 문헌이 실제로 제공되어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적합성이다. 이 적합성을 만족시키는 문헌만이 검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적합한 문헌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 문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문헌이 적합할 수 없다. 여섯째 제공된 문헌의 내용은 이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제공된 문헌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문헌은 적합할 수 없다. 다섯째와 여섯째 단계에서의 적합성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실제적인 적합성이다. 이 적합성이 만족되어야 문헌이 제공되고 이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헌의 유통 과정은 문헌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헌의 유통은 점차적으로 개인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여러 단계의 적합성이라는 체를 사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성은 문헌 유통의 근본이 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과제 또한 문헌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2〉 적합성에 의한 문헌의 유통 과정

2.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생산부터 문헌의 이용까지 문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다. 문헌의 유통에는 유통이 되는 대상이 있고, 유통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유통의 목적지가 있다. 그렇다면 문헌정보학



〈그림 3〉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

은 적합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림 3>에 있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4개 있다. 첫째가 문헌이다. 문헌은 유통의 대상이다. 문헌이 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문헌의 내용이 유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헌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어떤 문헌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추되는가 이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들은 문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表現)하고 조직하기 위한 주제 목록, 색인, 초록, 주제어 선택 방법, 자동 색인 방법, 수동 색인과 자동 색인의 비교, 색인어 선택의 일관성 유지 등의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문헌의 내용을 다루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문헌의 내용을 고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어 출현 빈도에 근거해 선택된 색인어로 문헌을 색인하는 경우 단어 출현 빈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 문헌의 의미가 고정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의 이용자가 유추해 내는 문헌의 의미는 이용자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이다. 정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이용자 때문에 정보가 되는 문헌의 내용 유추의 주제 또한 당연히 이용자다. 문헌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용자에 의한 의미의 유추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용자는 배제된 채 시스템(색인자 포함)에 의한 의미만을 다루어 왔다. 문헌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헌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헌의 유통 과정이다. 생산된 문헌들은 유통 과정을 통해 적합한 것들만 선택되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해야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헌 유통의 전반적인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문헌의 유통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이용자이므로 문헌의 유통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이용자다. 문헌 유통의 마지막 과정은 문헌의 이용인데 이용자는

문헌 유통의 목적지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전달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자가 어떤 문헌을 원하는지, 문헌의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른다면 어떤 문헌이 이용자에게 적합한가를 판단할 길이 없어 문헌의 유통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가 문헌 유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어떤 방법과 수단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방법이란 과정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수단에 내재해 있는 형식과 구조, 수단의 작동 원리, 그러한 수단의 적용, 운영, 절차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과정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떤 경우 이 둘을 따로 떼어 놓거나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과정은 전단계와 현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보고 방법은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한 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형식, 구조, 작동 원리, 절차, 그리고 수단의 적용과 운영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과정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문헌의 유통 방법은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의 유통을 위한 것이므로 이용자와 적합성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방법이 수단에 적용되어야 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문헌, 유통 과정, 이용자, 그리고 유통 방법이 문헌정보학의 연구 대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유의할 것은 적합성과 이용자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성과 이용자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학문적 과제 몇 개를 예시해 보겠다.

3. 문헌의 생산에 관한 과제들

적합한 문헌의 유통을 위해 적합한 문헌의 원활한 생산은 필수적인 것이

다. 특히 문헌 유통 수단의 발달은 개인에 의한 출판물⁹⁾ 가능하게 해 재래식 문헌의 생산 증가와 함께 생산되는 문헌의 양을 증가 시켰고 질 낮은 문헌의 유통¹⁰⁾ 또한 크게 증대시켰다. 적합한 문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방법이 생산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1) 문헌의 생산 활동에 관한 평가

문헌의 생산에 연관된 것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사회에 적합한 문헌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과 같은 개인 생산자에 대한 평가, 학회나 연구소와 같은 단체 생산자에 대한 평가, 학회와 학술 잡지와 같은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은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평가 대상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유발해 평가 대상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 우선 공정한 평가 항목과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평가 기준을 실제의 평가에 적용할 때 공정한 적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평가의 효율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은 첫째 평가 대상의 효율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평가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9) 재래식 문헌은 출판 비용이 비싸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헌의 출판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자 문헌이 등장하고 이것을 넓은 지역으로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일반인들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난 후에는 개인도 문헌을 손쉽게 그리고 싼 값에 전 세계로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10) 재래식 문헌 출판의 과정과 비용은 생산되는 문헌의 질과 신빙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통신망을 통해 개인에 의해 출판되는 문헌은 질과 신빙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질과 신빙성이 낮은 가능성이 크다(예 : Stoll, 1995, 55-58쪽). 도서관이나 DIALOG와 같은 문헌정보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문헌과 인터넷에 있는 문헌의 질과 신빙성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문제가 명백해진다.

수 있어야 평가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와 단위의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효율의 측정에 그친다면 평가 대상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 평가 대상의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효과적인 평가 항목을 개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항목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 유통의 시작은 적합한 문헌의 생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적합한 문헌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 항목의 개발과 실제의 평가에서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절차의 개발은 우리 한국과 같이 학문의 발전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는 문헌정보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과제다. 인용 분석을 통해 학술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나(Nardin, 1976) 외국 자료를 주로 인용하거나(예 : 이해영, 1994, 69-70쪽 ; 신동민, 1996, 92쪽) 인용 빈도가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인용 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2) 전자 문헌의 저작권 문제

문헌의 유통은 문헌이 생산되어 그것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이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헌의 생산과 문헌의 제공 모두가 원활해야 문헌의 유통이 원활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저자의 권리 보호와 문헌의 자유로운 제공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개발은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정보(여기서는 문헌)의 생산자인 저작자, 정보의 배포자인 출판사, 그리고 정보의 이용자인 공중간의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저작권법은 공공의 정보

이용이라는 요소와 저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소를 조화롭게 연결” 시키는 것이다(황혜선, 1996). 전자화되지 않은 재래식 문헌의 경우 복제와 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문헌의 공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자의 권리 보호와 문헌의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문헌의 복제와 전달이 매우 빨라 문헌의 공유가 쉬운 전자 문헌의 경우에는 저자의 저작권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996년 개최됐던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에서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큰 어려움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지적했던 저작권의 문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구체적인 법에 관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지만 그러한 법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근거를 문헌정보학이 제공해야 한다.

(3) 생산된 문헌의 보관

생산된 문헌은 한 시대의 지식, 문화, 기술 등 그 시대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보관되어 후세에 전달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가장 대표적인 문헌 보관 기관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문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문헌을 저장하고 있는 수단 그 자체를 오랫동안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 보관을 위한 비용과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문헌 저장 수단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 문헌의 출현은 이러한 것들 보다는 문헌 그 자체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재래식 문헌은 한번 생산되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 문헌은 생산된 후에도 삭제, 수정, 편집 등의 변경이 매우 쉽기 때문에 생산된 문헌이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적합한 전자 문헌의 유지 및 보관에 대한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의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에도 직접 연관된 것이다(황혜선, 1996). 전자 출판이 대중화 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것들에 관한 연구 과제는 시급한 것이다.

(4) 문헌의 표준화

재래식 문헌의 생산 증가와 더불어 개인에 의한 출판은 문헌 생산 양을 크게 증가 시켰고 그리고 이와 함께 넓어진 검색 범위는 적합한 문헌의 검색을 어렵게 해 문헌 유통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통신망을 통해 개인적으로 출판되는 문헌들을 일일이 찾아 색인하거나 목록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검색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예: Barnes, 199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의 생산자가 문헌을 색인하거나 혹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문헌의 표준화다.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되고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수집된 문헌들을 일관성 있게 검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헌이 표준화된 형태로 생산되어야 한다. 문헌을 생산할 때 저자, 제목, 주제, 생산일 등 문헌을 표현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하여 문헌을 생산한다면 수많은 문헌이 자동적으로 조직되어 적합한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문헌의 표준화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표준화라는 것은 그 목적이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헌의 조직이나 표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Desai, 1995) 이는 도서관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문헌 요소들의 정리에 그치고 있다. 통신망상의 문헌은 도서관 장서와 다른 특성이 많기 때문에(예: Coates, 1997) 이러한 것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문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헌 요소가 발견되어야 한다. 물론 문헌의 표준화에 연관된 각종 제도나 정책 등과 같은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문헌의 수집에 관한 과제들

생산된 문헌의 수집은 도서관학에서 장서 개발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것이다. 문헌 유통 수단의 발달로 문헌 유통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헌의 수집에 미친 영향들 중 중요한 두 가지는 잠재적 장서와¹¹⁾ 수동적 수집의¹²⁾ 증가다. 잠재적 장서와 수동적 수집은 과거 전통적 도서관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문헌정보 서비스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1) 가치 있는 잠재적 장서의 발견

통신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장서는 그 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잠재적 장서는 도서관 장서와는 달리 전체적인 적합성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장서를 문헌정보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잠재적 장서의 발견은 필수적이다.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서 개발과 유사한, 잠재적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다. 도서관 장서 개발에 사용되는 기준과 방법이 있다

- 11)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장서는 구체적 장서와 잠재적 장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장서는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속해 있는 문헌이다. 잠재적 장서는 어떤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수집하지도 않았고 그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그 기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장서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에 있는 문헌들이다.
- 12) 문헌의 수집은 능동적 수집과 수동적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적 수집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어떤 특정 문헌의 수집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수동적 수집은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혹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을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용자가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 통신망에 올려 놓은 문헌이다.

해도 도서관 장서와 잠재적 장서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적합성의 기준을 발견해 장서 개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평가 기준

통신망을 통한 문헌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집된 전자 문헌들 만으로 문헌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의 평가 기준에 관한 것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들의 질은 수집의 특성상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이 직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공된 문헌들 중 질 낮은 문헌만을 제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집된 문헌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문헌의 특성상 잠재적 장서나 도서관 장서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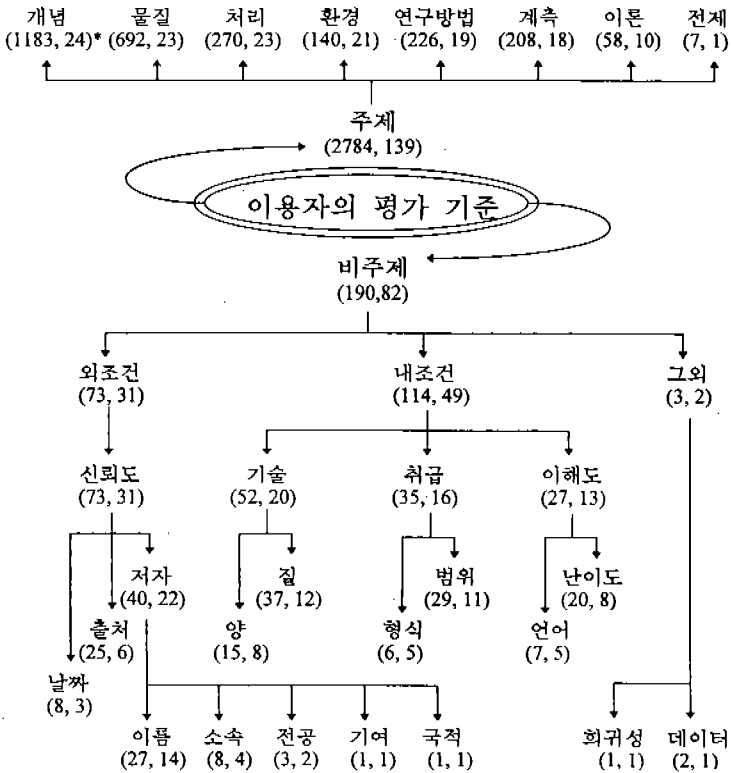
5. 문헌의 조직에 관한 과제들

현존하는 문헌의 조직 방법들은 문헌 유통 수단이 정보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이전에 개발된 것이거나 혹은 이러한 변화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의 효율은 이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문헌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잠재적 장서나 수동적으로 수집된 문헌에 대한 효율은 더욱 더 낮을 것이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새로운 문헌 조직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1) 이용자의 문헌 평가 기준에 근거한 문헌의 조직

문헌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별로 조직하는 것과 비주제적인 문헌 요소별로 조직하는 것이다. 저자, 문헌 제목, 발행 시기 등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비주제적인 문헌 조직 방법이다. 그리고 주제별로 조직하는 방법은 색인자에 의한 수동 색인, 문헌의 제목, 초록, 본문 등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에 근거한 자동 색인 및 분류(예: Salton, 1989), 문헌의 제목, 초록, 본문 등에 있는 단어, 구, 문장 등의 구문(構文)구조에 근거한 색인(예: Gay & Croft, 1990; Metzler, Hass, & Cosic, 1990)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대상으로 하는 문헌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출판되고 수집된 문헌에 대한 효율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수집된 문헌에 대한 효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에서 몇 개의 주제어를 넣어도 수만 개의 문헌이 나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문헌을 일일이 읽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효율적인 검색이라 할 수 없다.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 출판되는 문헌에 대한 현존하는 검색 방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나 새로운 환경에서 효과적인 문헌 조직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나 이용자의 문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심도 있게 연구해 이를 문헌 조직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DIALOG를 통해 검색된 학술 문헌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 기준이 <그림 4>에 있다(Park, 1996, p. 423). 이렇게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매우 적합한 문헌만을 찾기 위해서는 문헌은 이러한 평가 기준들에 근거해 조직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림 4>의 평가 기준들은 그 기준들을 발견하는데 사용된 이용자와 문헌의 특성상 모든 이용자를 위한 모든 문헌의 조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특정한



*(사용횟수, 사용자수)

〈그림 4〉 이용자의 문헌의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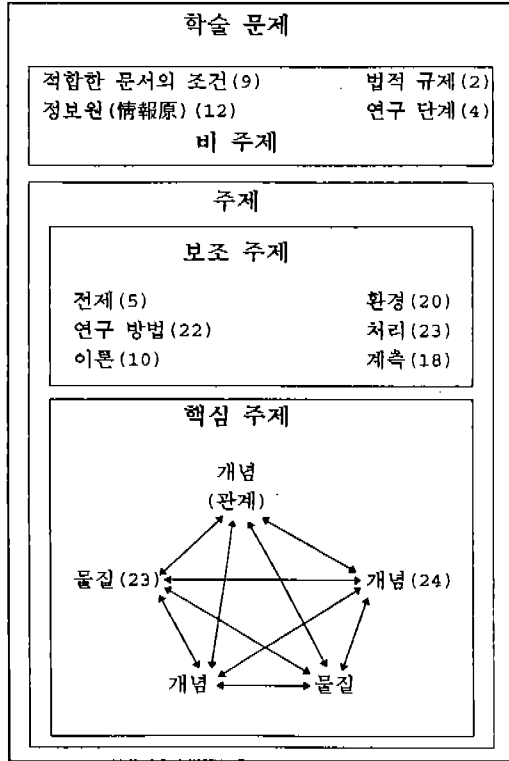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조직하려면 그 특정한 문헌에 대한 그 특정한 계층의 평가를 연구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문헌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평가 기준들이 발견된다면 공통적인 혹은 종합적인 문헌 조직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문헌의 표준화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문헌정보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2) 문헌의 효과적인 표현

문헌 검색을 통해 발견된 문헌들에 대해 이용자가 최종적인 적합성 판단을 한다. 문헌정보 서비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정확한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적합성 판단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문헌 그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문헌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나 문헌의 수가 많은 경우 이용자는 문헌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보고 적합성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 목록은 문헌의 주제, 제목, 저자, 출판일, 쪽수 등 문헌의 내용과 그리고 내용 외적인 면들을 보여 주어 그 문헌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 할 수 있게 해 준다. 문헌의 초록도 이러한 기능을 한다. 어떠한 형태의 문헌 표현이건 문헌 표현의 기능과 목적은 짧고 간단하게 문헌에 관한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기호의 양에 크게 비례한다고 볼 때 가능한 적은 양의 기호를 가지고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헌의 적합성에 관한 이용자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문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문헌이 이용자의 평가 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술 문헌들을 <그림 4>에 있는 평가 기준들을 사용해 표현한다면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헌의 적합성을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양한 사용자들의 평가 기준을 발견한다면 좀 더 일반적인 문헌 표현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 문헌의 검색에 관한 과제들

문헌검색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헌검



〈그림 5〉 이용자의 학술 정보 요구 구조

색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헌이 적합한지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헌의 검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문헌의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용자 자신도 자신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과

적인 문헌검색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그림 5>에 학술 정보 요구의 구조가 있다 (박홍석, 1995-1).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의 학술 정보 요구에 대한 서술을 분석해 발견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정보 요구의 구조가 발견될 수 있다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검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대리인과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대리인이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로서 사용될 수 있다.

7. 문헌의 제공에 관한 과제들

검색된 문헌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이용자의 지적, 문화적, 경제적 능력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문헌이 이렇게 제공되어야 그 내용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 문헌이 실제로 적합한 것이 된다.

(1) 문헌의 가공

검색된 문헌의 내용이 잠재적으로 이용자에게 큰 가치가 있다 해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문헌은 결코 적합할 수 없다. 이러한 문헌은 이용자의 지적 능력에 맞게 가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문헌 내용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문헌의 잠재적인 적합성을 실제적인 적합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헌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문헌 가공의 전반적인 것을 문헌정보학이 다루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차단

전자 문헌의 출현과 통신망의 발달로 문헌의 검색과 제공이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의 장서에서 국제적인 범위로 넓어지고 그리고 문헌의 유통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화에 맞지 않는 문헌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다루었던 기사를 예로 들어 보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한 국가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로 열려 있기 때문에 법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가 로버트 미첼氏는 “인터넷은 국가의 총체적인 통제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아 가 버렸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돈 블랙이 이끄는 ‘폭풍의 전선’(Storm-Front)과 같은 몇몇 그룹들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독일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독일 내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는 처벌됐을 것이다...(주간조선 1996년 4월 18일)

통신망을 통한 국제간의 문헌 유통은 한 나라의 법과 문화가 그 유통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서 청소년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문헌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헌의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

8. 문헌의 이용에 관한 과제들

문헌 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헌의 이용이고 이는 문헌의 적합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문헌의 이용에 관한 것들이 밝혀진다면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문헌의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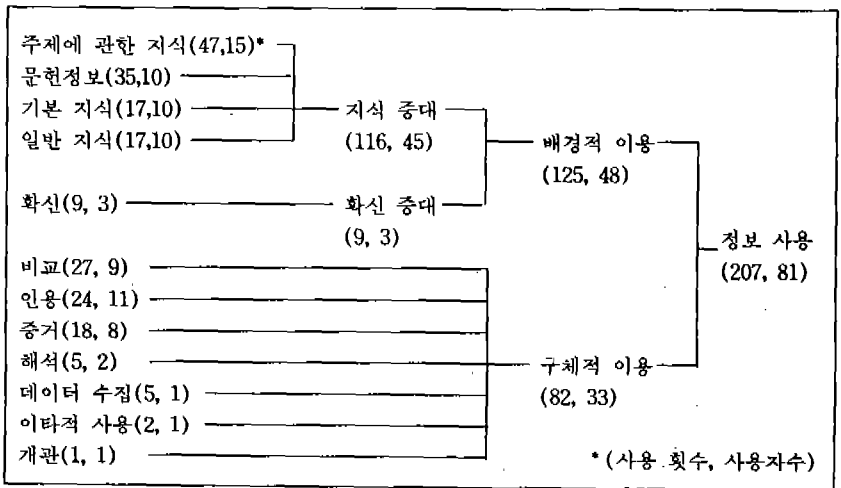
이용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을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혹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¹³⁾ 문헌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왜 다른 종류의 문헌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종류의 문헌을 검색하여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용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을 주로 이용하는데 반해 다른 이용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최근의 논문을 주로 이용한다면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문헌은 달라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 폭 넓게 알고 싶거나 혹은 최신의 것을 알고 싶거나 등의 이용자 문제의 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지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분야와 매우 빠른 분야의 차이와 같은 학문 분야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문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인들이 발견되고 이들에 적합한 문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문헌의 이용 목적

이용자는 여러 가지 이용 목적을 충족 시키기 위해 문헌을 이용한다.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문헌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 기초적인 것을 알기 위해 문헌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특정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들 위해 문헌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그 주제가 같더라도 적합한 문헌의 종류는 다를 것이다. 어떤 주제에 관한 일반적이거나 혹은 다양한 문헌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나 수준 높은 학술

13) 여기서 종류란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림 4에 있는 것과 같은 비주제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지에 게재된 문헌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제에 관한 이용자의 지식 정도에 따라 난이도나 형식 등이 다른 문헌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헌의 이용 목적과 이에 적합한 문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면 이용 목적에 맞는 문헌을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6>에 학술 문헌의 이용 목적들의 예가 있다(박홍석 1995). 이러한 이용 목적에 맞는 문헌들은 적합성이 높은 문헌들이다. 이용 목적들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적합한 문헌의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을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문헌 검색을 위해 문헌정보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림 6> 학술 문헌의 이용 목적

(3) 문헌의 이용 방법

이용자가 문헌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어떤 문헌은 그 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단지 그 글

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약간 비슷하거나 연관되었다는 것을 언급만하기 위해 문헌의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단지 간단하게 인용만 될 것이다. 혹은 소수의 문헌을 중심으로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전개하는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헌을 비교 종합하여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전개하는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 혹은 소수의 문헌을 숙독하는 숙독형의 이용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문헌을 읽기 원하는 다독형의 이용자도 있을 것이다.¹⁴⁾ 문헌의 이용 방법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적합한 문헌의 기준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에 관한 것이라도 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쓴 문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만 엄선하여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양하고 폭 넓은 문헌들을 제공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헌의 이용 방법과 이에 적합한 문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면 적합한 문헌의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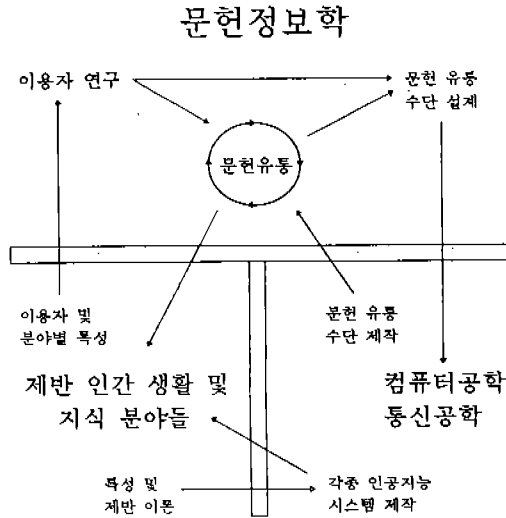
Ⅲ.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지금까지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개념인 문헌, 정보, 그리고 적합성을 다루었고 이것들과 문헌 유통 과정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과제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하는 문헌 유통은 적합한 문헌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것이므로 적합성이라는 것은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하는 핵심 개념이다. 정보의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이용자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학문 분야가

14) 이러한 이용 방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인용 분석이다.(예 : Cronin, 1984, 35-49쪽).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적 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문헌정보학의 과제들을 통해 예시되었다.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연구는 원활한 문헌의 유통을 위해 문헌정보학이 무엇보다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7〉 문헌정보학의 역할

〈그림 7〉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제반 인간 생활 및 지식 분야들에 대한 이용자 연구를 하여 이용자 및 분야별 특성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문헌의 유통에 적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연구와 문헌 유통 방법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 유통 수단을 설계해 문헌 유통 수단의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중심적인 것이다.

〈그림 7〉을 보면 문헌 유통 수단은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하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다. 중요한 문헌 유통 수단인 컴퓨터나 통신망이 문헌정보학의 주된 학문적 과제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그러한 수단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학문 분야에 존재하는 지

식이 문헌정보학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문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인쇄나 제지 기술과, 자동차, 우편, 팩스 등과 같은 문헌의 전달 수단에 관한 것들이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지만 문헌정보학은 문헌 유통 수단을 사용해 문헌을 유통 시키기 위한 학문 분야이므로 이러한 목적과 방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문헌의 유통을 연구하여 문헌의 유통에 사용되는 수단을 다루는 컴퓨터공학 분야가 문헌 유통 수단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야 하는, 컴퓨터공학과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학문 분야다. 문헌의 유통 수단인 컴퓨터가 다루는 대상은 인간 사고의 산물인 문헌이고, 문헌의 유통 수단인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헌 유통의 목적은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문헌 유통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수단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용자는 문헌정보학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문헌정보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통 수단의 제작은 컴퓨터공학이 다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현대에 문헌 유통 수단의 발달이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했지만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과제는 컴퓨터와 통신망과 같은 문헌의 유통 수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도서관학이 과거의 중요한 문헌 유통 수단인 제지술, 인쇄술, 육상 운송 수단, 팩시밀리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다.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서 문헌정보학의 참된 역할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것들을 정리하자면 문헌정보학은 이용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에 대한 자

세한 연구 없이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문헌정보 서비스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는 문헌정보학은 철저한 이용자 연구를 수행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학문 분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러한 것은 변화하는 문헌정보 서비스 환경과 이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 그리고 이에 대한 문헌정보학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컴퓨터와 통신 수단 등의 발달에 의해 주도된 문헌의 유통 과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하게 문헌 유통 수단의 발달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법의 발전 없이 문헌 유통 수단만이 발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문헌 유통 방법을 문헌정보학이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이용자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헌검색 분야에서는 문헌정보학이 컴퓨터공학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으나 이것은 문헌정보학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모델을 만들어 시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계에 효과적인 문헌검색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이용자 연구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미래에 도서관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많다. 만약 미래에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용자에게 맞는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개인이 검색할 수 있는 범위와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검색의 범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때에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와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

력일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문헌을 유통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체계화해서 문헌 유통 수단의 제작에 적용해 문헌 유통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문헌정보학의 중요한 학문적 역할이다. 문헌정보학과와 교과과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변화하는 대학 환경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홍석. (1995ㄱ). 이용자 문제의 구조와 이의 이용자 문제 지향적 정보검색에 대한 적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28집, 247-266쪽.
- 박홍석 (1995ㄴ). 과학 정보의 학술 연구를 위한 이용 목적. 제2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7-100쪽.
- 신동민 (1996).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수집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권 1호, 83-101쪽.
- 이해영 (1994). 한국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권 1호, 57-79쪽.
- 황혜선 (1996). 정보기술과 정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과 한국정보과학회 주최로 1996년 11월 25-26일 대전 대덕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workshcp:인터넷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에서 발표된 논문.
- Barnes, B. (1997). Search Me: Why It's Still Harder to Find Things on the Web Than at the Library. Slate (<http://www.slate.com/webhead/97-04-24/webhead1.asp>).
- Bookstein, A. (1979). Releva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0(5), pp. 269-273.
- Coates, E. (1997). Cataloging the Web. 뉴스 그룹 bit.listserv.autocat에 1997년 4월 27일에 게재된 글.
- Cooper, W. S. (1971). A Definition of Relevance for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Vol. 7, pp. 19-37.
- Cronin, B. (1984). The Citation Process: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Citations in Scientific Communication. London: Taylor Graham.
- Desai, B. C. (1995). Report of the Metadata Workshop Dublin, OH.

- <http://www.cs.concordia.ca/~faculty/bcdesai/metadata/metadata-workshop-report.html>
- Eco, U. (1984).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London: MacMillan Press.
- Gay, L. S. & Croft, W. B. (1990) Interpreting nominal compounds for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26, pp. 21-38.
- Hillman, D. J. (1964). *The Notion of Relevance*. *American Documentation*, Vol. 15(1), pp. 26-34.
- Kemp, D. A. (1974). *Relevance, Pertinence, and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Vol. 10, pp. 37-47.
- Leonard, L. E. (1975). *Inter-Indexer Consistency and Retrieval Effectiveness: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Ph. D.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 Markey, K. (1984). *Interindexer Consistency Tests: A Literature Reviews and Report of a Test of Consistency in Indexing Visual Materi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 6, pp. 155-177.
- Metzler, D. P., Hass, S. W., & Cosic, C. L. (1990). *Conjunction, Ellipsis, and Other Discontinuous Constituents in The Constituent Object Parser*.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26, pp. 53-71.
- Nardin, F. (1976). *Evaluative Bibliometrics : The Use of Publication and Citation Analysis in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Activity*. Report for the fulfillment of Contract NSF C-627 with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Park, H. (1995). *Inferential Relevance and Its Implications to Inferential Information Retrieval*. Ph. D. Thesis. Rutgers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Park, H. (1996). *Inferential Representation of Science Document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32(4), pp. 419-429.
- Park, T. K. (1993). *The Nature of Relevance in Information Retrieval : An Empirical Study*. *Library Quarterly*, Vol. 63(3), pp. 318-351.
- Salton, G. (1989). *Automatic Text Processing*. Reading, Mass :

Addison - Wesley.

- Saracevic, T. (1975). Relevance : A Review of and a Framework for the Thinking on the Notion in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26(6), pp. 321-343.
- Schamber, L., Eisenberg, M. B., & Nilan, M. S. (1990). A Re-Examination of Relevance : Toward a Dynamic, Situational Definition.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26(5), pp. 755-776.
- Sperber, D. & Wilson, P. (1986). *Relevance :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l, C. (1995). 허풍떠는 인터넷. 한경훈 역. 세종서적
- Wilson, P. (1973). Situational Relevance.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Vol. 9, pp. 457-471.

User Study as a Academic Backgroun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ark, Hong Seok*

〈Abstract〉

The library collects relevant documents, organizes these documents, retrieves and provides relevant documents, and helps the user use provided documents. These library activities are the distribution process of relevant documents in a society, and the role of library science is to deal with several problems in this process. This process i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socially relevant documents, to select documents relevant to an individual user, and to enable the user to use the selected documents. As a result, this process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relevance". As a result, the academic role of library science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relevance". "Relevance"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meet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library services, which is getting more complex and changing rapidly because of the computer and the computer network. It is true that these are very important tool for document distribution. However, the problems in the document distribution can not

* Part-time Lecture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be solved only by the simple development of these tools because these have been caused by the simple development of these tools.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only through many studies of the user, which is the destination of document distribution, and through applying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o designing these tools.